

오키도마리 도로(요즈쿠하데)

그림처럼 아름다운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인 니시타는 과거 이와미 은광과 유노쓰항, 오키도마리항을 연결하는 역참 마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입니다. 은이 이 길을 따라 해안으로 운반된 것은 16 세기 후반의 40 년 동안에 불과했지만, 19 세기 후반까지 이 길은 은광을 오가는 물류의 주요 경로였습니다. 많은 사람이 이곳을 지나면서 니시타의 찻집과 역참, 술집 등이 번창했으며 정기적으로 열리던 시장에는 근교 마을에 사는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.

마을의 위쪽 구석에는 상업의 신 에비스를 모신 가미이치 에비스 사당이 있습니다. 지역민들은 이 작은 사당에서 시장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. 또한 화재를 막기 위해 자비의 보살인 관음보살에 기도를 드리거나 도로변에 안치된 석조불상에 안전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. 이처럼 서민들이 신앙으로 믿었던 다양한 대상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. 수확한 벼를 천일동안 건조시키는 ‘요즈쿠하데’라는 옛날 그대로의 전통 기법도 흥미로운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. 니시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방식은 사용하는 목조 틀이 올빼미와 닮았다고 해서 지역 방언으로 ‘올빼미’를 뜻하는 단어 ‘요즈쿠’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.